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VR 체험존 구축



곡성군이 섬진강기차마을 안에 전국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광·게임·체험적 요소를 가미하고 어드벤처 판타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VR) 레이싱 시뮬레이터 체험존을 관련 업체와 공동 개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관광·게임·체험적 요소 가미...전국 최초 내달 중순 설치 테스트 거쳐 3월 초 일반 공개

곡성군이 섬진강기차마을 안에 전국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광·게임·체험적 요소를 가미하고 어드벤처 판타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VR) 레이싱 시뮬레이터 체험존을 관련 업체와 공동 개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기획·추진돼 왔으며 국내·외 수많은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상현실 개발업체와 시험인증을 통과해 첫 단추를 끼웠다. 레일바이크 페달을 굴리며 동시에 2명이 가상현실 레일 위에서 경주를 펼칠 수 있으며, 말뚝이 도깨비들이 출몰해 레이싱을 방해하는 등 스포츠기반의 게임적 요소도 가미됐다. 또 물리코스터를 타고 하늘을 날

고 수준으로 잡수하기도 하며 레이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장미공원과 도깨비마을을 넘나드는 관광 스토리텔링적 요소로 지역특화자원을 4D 체험 콘텐츠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마지막 작업 중으로 2월 중순에 섬진강기차마을 안에 설치해 테스트 단계를 거친 후 보완해 3월 초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차세대 유망산업인 VR컨텐츠 경쟁력을 선점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융복합해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섬진강기차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가 강진군 칠량면에 소재한 땅심화훼영농법인을 현장 방문하고 있는 모습. 청자골 장미는 지속된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국내 화훼산업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품질로 틈새시장을 공략,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경기불황은 남 얘기"

'강진 장미' 대박행진

김영란법 등 악조건 불구 고소득 창출 벼농사비 30배 수익

경기불황은 남의 얘기다.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강진 장미가 대박 행진을 펼치고 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칠량면에 있는 땅심화훼영농법인이 재배, 판매하고 있는 '청자골 장미'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청자골 장미는 지속된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국내 화훼산업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품질로 틈새시장을 공략,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 장미의 최대 집산지인 경기 고양시와 비교했을 때 국토 남단에 있는 강진의 1월 평균 기온은 6도 정도 높다. 이 같은 지리적 위치의 이점을 살려 활용, 난방비를 절감시켜 생산비를 이긴다. 강진의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을 통해 꽃의 색과 향이 등 품질을 최고의 상태로 균등하게 유지해 전국의 화훼 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청자골 장미가 화훼 농가의 효과 상품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도 있었다. 고온성작물로 난방비 부담 때문에 생산 작물을 교체하기도 하고 계속된 이어짓기로 품질과 생산성이 저하돼 농가 소득이 감소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장미산업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국비를 확보해 20억원 가량 투자했다 이어 짓기의 피해 해소를 위해 일액재배 시설로 재배법을 과감히 바꾸었고 난방비 절감을 위해 보온커튼 지원,

인공햇빛인 보광등 설치와 광합성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액화탄산가스 공급시설 지원 등 첨단시설과 장비를 지원했다. 현재 청자골 장미는 생산량과 품질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받으며 농업인 소득 창출에 효과노릇을 하고 있다. 올 1월 현재 강진군은 3만6천900평 31농가가 장미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남 전체 장미 생산량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열송이에 연평균 5천원에 판매해 국내 유통기준 평균가격인 4천원보다 25%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벼농사 대비 30배 이상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

생산자 단체인 땅심화훼영농법인(대표 최명식)은 향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일본 현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소문 계통의 장미를 농가당 200평 이상을 재배해 국내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

장미농가의 소득 확대를 위한 장미 재배를 위한 귀농 농가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내외 경쟁력이 높은 장미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 전국 최고 화훼단지 조성하고 농업소득 배가 5개년 계획에 의거, 고소득 작목인 시설원예 산업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증대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최재영 기자

담양군, 대나무축제 프로그램 제안 공모

29일까지 대나무 관련 전시·체험프로그램 공모

담양군이 올해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인 담양대나무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안 공모에 나섰다.

2018년 담양 지명 천년의 해를 맞아 개최되는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는 오는 5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대숲 향기, 천년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다. 군은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전 국민의 참신

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달 29일까지 제안받는다.

이번 공모는 대나무 관련 각종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축제의 단일소재인 대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 축제의 기본요소인 유희성, 일탈성, 대중성, 지역성을 잘 나타내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 등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대나무축제 홈페이지(bamboofestival.co.kr) 또는 담양군 홈페이지(damyang.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응모제안서와 사진, 동영상 등 첨부 자료를 군 관계제과로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thw351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운수대통령(1명)에는 50만원, 죽순상(1명) 30만원, 땃잎상(1명) 20만원이 지급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해남군, 다자녀 가정 교복지·학자금 지원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교복지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5년이상 거주 조건을 완화해 3년 이상 계속해서 해남군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교복지의 첫해부터 중·고교

3년이상 거주·읍·면사무소 신청

교복지, 첫해부터 25만원 지원

입학시 2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자금은 고등학교의 경우 셋째아부터 공납금 전액이 지원되며 대학생은 넷째 아부터 학기당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받을 수 있다.

단 한국장학재단 등 기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제외한 입학금·등록금 실납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여성지원팀(061-530-5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암군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합시다"

현수막 및 홈페이지 홍보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영암군은 지난 1월 8일 2018년 정기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7,503건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또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납기가 지날 경우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기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지역공동체·경제·정리·정돈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확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